

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오후 1)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의 인공지능과 (나)의 '지리학자'를 (다)에서 제시한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라 할 만하다.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정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제안, 추천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인공지능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 속도와 메모리 용량을 갖추어 작동한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외부에서 투입된 방대한 데이터를 이미 정해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처리하고, 어지러운 데이터 속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 통계적 개연성이 높은 출력물로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정보를 가치 중립적으로 취급한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다.

인공지능 기술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단지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온갖 정보를 긁어모아 재조직한 '인터넷의 흐릿한 반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근사한 결과물이 현실 세계의 원리와 맥락에 대한 능동적 경험과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있을 법해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는 있지 않은 사실을 말하거나, 우리의 사회적 상식과 감각에 어긋나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 캐나다에서는 한 변호사가 인공지능이 추천한 3개의 판례를 법정에 근거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그중 2개가 세상에 있지 않은 거짓 판례로 드러난 일이 있었다. 캐나다 법학회는 이 일이 법률 행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그 변호사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인공지능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최근에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인공지능 제품들은 복잡한 연산을 거쳐서 대규모의 언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능력이 인간사의 문제 해결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인공지능은 신문 기사와 학술 논문의 요약뿐만 아니라, 시 창작이나 맞춤형 교육과 같이 고도의 언어 사용 능력이 요구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해외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인공지능 상담사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섬세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상담 언어를 학습한 AI가 24시간 대기하면서 화가 난 내담자들과 텍스트 기반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토로하는 이야기에 공감하며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친절한 답글로 추천해 준다. 이런 이유로 혹자는 ㉠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나)

여섯 번째 별은 열 배나 더 넓은 별이었다. 그 별에는 노신사가 한 사람 살면서 커다란 책을 쓰고 있었다.

“됐나! 탐험가가 하나 오는구나!” 그는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벌써 멀리도 여행을 했구나!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야?” 노신사가 물었다.

“그 두꺼운 책은 뭐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세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어디에 바다가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도시가 있고, 사막이 있는지 아는 학자를 말한다.”

“그거 참 재미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제야 직업다운 직업을 만났구나!” 그러고는 지리학자의 별을 슬쩍 둘러보았다.

이렇게 위엄 있는 별을 그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다.

“참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별에는 큰 바다도 있나요?”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산은요?”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맞는 말이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탐험가가 아니다. 나는 탐험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도시와 강과 산과 바다와 대양과 사막을 세리 다니는 사람은 지리학자가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나돌아 다닐 수가 없어. 지리학자는 자기 서재를 떠나지 않는단다. 그러나 서재에서 탐험가를 맞이하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한 탐험가가 흥미로운 기억을 얘기하면 그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하게 되지.”

“그건 왜요?”

“거짓말을 하는 탐험가는 지리책에 큰 난리를 일으키거든.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로. 술 취한 사람은 하나를 둘로 보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둘이 있다고 기록할 거 아니니.”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다)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배운다. 우리는 무언가를 학습할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를 생산적으로 소화하여 이를 다시 말이나 글로 꺼내어 놓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용량은 제한적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마구잡이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기보다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학습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한 복잡한 정보처리 과정을 상세한 설계도로 제작하여 그에 따라 반복적으로 훈련을 거듭하면 초보자도 전문가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인간은 자신을 성찰하면서 배운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를 스캐너처럼 있는 그대로 찍어서 기억 속에 저장하지 못한다. 대신에 우리는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요 정보와 세부 정보를 판별하고, 이렇게 걸러진 정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라고 부르는데, 능동적 학습자는 자신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무엇을 더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질문하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자기 점검 능력과 반성적 태도가 성공적인 학습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한다.

인간은 몸소 경험하면서 배운다. 우리의 지능과 신체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적 학습 시스템이다. 즉, 머리로 배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 도구, 자원, 환경과 주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인간은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몸으로 배운다. 우리는 일생에 걸쳐 외부 세계와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교감하면서 섬세한 세상 지식과 공통 감각을 배워나간다. 이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맥락과 경험이 중요하다.